

가난한 지자체 옥죄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업비 절반 지자체 부담
광주 8개 사업 1000억 원 육박
재정여건 맞게 국비비를 조정
단기 성과 중심 시스템 바뀌야



정부가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의 절반을 지자체에 부담시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사진은 경제기반형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광주역 주변 모습.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쇠퇴한 구도심을 되살리기 위한 도시재생사업이 광주시와 5개 자치구의 재정을 옥죄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의 절반을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대한 감안없이 일괄적으로 부담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가난한 지자체는 구도심 쇠락도 방지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분권시대에 어울리는 사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실제 위주로 사업 대상지역을 늘리기보다 쇠락이 심각하고 재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선별해 예산을 집중하고,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한 지자체가 효율적으로 이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기 성과에만 매달리기보다 장기적으로 쇠락지역의 주민들이 계속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청년, 예술인 등 다양한 계층이 매력을 체감할 수 있는 장소로 거듭날 수 있는 '종합 처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따라 2017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를 통해 광주에서는 주거지원형 4곳, 중심시가지형 1곳, 경제기반형 1곳, 우리동네살리기 1곳, 일반근린형 1곳 등 모두 8곳이 선정됐다. 시는 올해 남구 백운광장 주변(중심시가지형)을 포함해 2021년까지 3년간 16곳을 더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 사업으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

운 광주시와 5개 자치구의 재정 여건이 열악해질 전망이다. 이들 지자체의 걱정도 커지고 있다. 기존 8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시와 자치구가 국비 929억원과 똑같은 액수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추가되는 사업까지 감안하면 자치구가 감당할 수 없는 실정이다. 남구, 서구 등 이미 2곳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자치구의 경우 자체 조달 가능한 예산 수준을 넘어 당장 올해 공모에 참가 여부를 두고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광주나 5개 자치구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은 극히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국정과제인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

한 지방비 비율을 50%로 적용한 것은 문제"라며 "재정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예산 배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7년 기준 광주시의 재정자립도는 39.9%로, 전국 6개 광역시 가운데 꼴찌이며, 5개 자치구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15.9%로 전국에서 가장 열악하다.

이와 함께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시행 3년째를 맞아 기존 재개발, 재건축 등 민간 건설업체를 통한 도시정비사업이나 중심시가지형 재생사업 등 과거 정부의 기존 도시재생사업과의 차별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주민의 재정적, 일자리 창출, 청년·예술인들의 창업 및

창작 공간 제공 등을 위해서는 단순한 시설·공간 개선만이 아니라 지역의 매력을 높일 수 있는 문화예술, 경영, 마케팅,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봉수 광주도시재생연구소 이사는 "도시를 재생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쇠락한 만큼의 시간이 필요하며, 그러한 관점에서 단계별로 성과를 측정하고, 전략을 모색해야 하는 복잡한 프로젝트"라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기반으로 외지인들의 전입 및 유동인구의 창출을 위한 전방위적인 계획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혁신도시 시즌 2' 공공기관 추가 이전 500개 기관 10만명 넘는다

이민원 전 균형발전위원장
"전국 혁신도시 발전 기회"

'혁신도시 시즌2'로 불리는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 규모가 공공기관과 정부출자·투자회사까지 합쳐 500개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주할 전체 인원도 10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돼 1차 이전 때 153개 공공기관의 5만1000여명 보다 2배가량 많아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전국 혁신도시 발전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1일 이민원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광주대 교수·전국혁신도시포럼 대표)은 "현재 지방으로 이전해야 하는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은 210곳, 정부투자·출자회사가 279곳, 추가로 이전할 부처들의 산하 공공기관은 40~50곳으로 모두 500곳이 넘는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7년과 2018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122개 기관이라고 밝힌 것보다 훨씬 많은 수준이다. 앞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9월 법률상 이전 대상인 공공기관 122곳의 추가 지방 이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와 청와대는 아직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전 위원장은 지난 19일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에서 발표한 '혁신도시 시즌2의 대전환' 자료를 통해 "2018년 기준으로 전체 공공기관 508곳 가운데 수도권 전류가 결정된 46곳과 이미 지방에 있거나 이전한 기관 252곳을 빼면 현재 지방으로 이전해야 하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은 210곳"이라고 밝혔다.

또 이전 위원장은 "공공기관에서 투자 또는 출자한 회사 279곳도 모두 이전 대상에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의 자회사는 38곳, 출자회사는 222곳, 재출자회사는 19곳이다. 이밖에 올해 세종시로 이전하는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근혜 정부 시절 추가 이전한 인사혁신처 등의 산하 공공기관과 투자·출자회사 40~50곳 역시 재심사를 통해 이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이전 위원장은 설명했다.

이처럼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는 공공기관과 투자·출자회사가 많다는 점은 전국 혁신도시 발전을 위해서는 고무적인 일이다. 16개 공공기관이 이주한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의 경우, 애초 한천 등의 이주로 기대를 모았지만 전체 이전 규모가 기대에 미치지 않아 아직 '혁신도시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전 위원장은 "1차 공공기관 이전의 규모가 충분치 않아 아직 혁신도시들이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2차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관련 사기업의 이전까지 지원해야 균형발전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18조에 따라 수도권에 잔류하도록 결정된 기관 외의 모든 공공기관은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육체노동 정년 60세 → 65세로 상향

30년만에 판례 변경
보험업계 등 파장 예고

사망하거나 노동력을 잃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연한' (노동에 종사해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의

상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박동현씨 부부와 딸이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총 2억5416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노동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해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

다. 재판부는 "육체노동의 경험직상 이제는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989년 12월 55세였던 노동가동연한을 60세로 상향한 바 있다. 1·2심은 기존 판례에 따라 박씨 아들이 60세가 될 때까지 육체노동에 종사해 벌었

을 수익을 2억8338만원으로 인정받 뒤, 수영장 업체의 과실비율을 60%로 보고 1억 7416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박씨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박씨의 판결과는 달리 지난 2016년 광주 고법은 목포의 한 상가 난간에서 떨어져 사망한 박모씨(당시 49세) 유가족이 목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가동연한을 65세로 판단해야한다며 엇갈린 판단을 내렸다. 두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5년
민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9]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3·1 운동 100주년 제54회 3·1 마라톤
3월 1일(금) 오전 8시30분 아시아문화전당 출발

SWITCH TO EQ

Introducing GLC 350 e 4MATIC

#switchtoEQ

GLC 350 e 4MATIC 출시!
탁월한 퍼포먼스와 놀라운 연비를
동시에 실현한 메르세데스-벤츠의 e-Mobility.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에서 경험하세요!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소문 서비스센터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안구 어룡대로 603(남동) 수암 서비스센터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안구 임당동대로 520(수암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GLC 350 e 4MATIC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2,120kg, 저속7단), 복합회합모드 연비 (CS연비): 9.7km/ℓ (도시연비: 9.1km/ℓ, 고속도로연비: 10.6km/ℓ), 복합전기모드 연비 (CD연비): 2.3km/kWh (도시연비: 2.0km/kWh, 고속도로연비: 2.6km/kWh), 복합CO₂ 배출량: 92g/km, 1회 충전 주행거리: 15km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제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를 이미징은 국내 시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